

하나로 부르신 가정(엡4:1-4)

바울은 로마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거대하고 화려했던 도시 에베소에서 교회는 폭풍속 위태로운 난파선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현대의 가정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핍박과 환란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교회됨을 잃지 않고 복음의 기지로 우뚝 섰습니다. 그 비결은 교회가 언제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 가족화’를 넘어 ‘핵 개인화’ 시대에 각 가정이 든든한 가정교회로 설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1. 가정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2절) 바울은 교회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참음, 서로용납, 사랑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값어치와 진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고, 반대로 강한 자, 힘을 통제하는 사람의 온화함입니다. 오래 참음은 화를 발하게 하는 이를 향하여 인내심을 발휘하는 일이며, 서로 용납은 단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상호인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특징을 아우르는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미덕의 절정이자 총합입니다. 어느 곳 보다도 하나됨을 이루는 이 5가지 기초석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5가지 미덕이 든든히 세워갈 때 믿음의 가정은 세상속에서 모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빛이 나게 됩니다.

2. 가정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3절) 가정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도 한분이시기 때문이며 몸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몸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1:23)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원죄를 지닌 사람의 모임인 가정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 현대 가정은 남보다도 못한 깨어진 관계의 가정이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며 자녀들은 자신들을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며 눈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 사랑하며 섬기어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힘을 주시어 우리는 한몸되어 사랑하며 섬길수 있습니다.

3. 가정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입니다.

(4절) 가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은 소명(calling)입니다. 내가 청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내가 거절할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자격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부르시면 우리는 예 하고 대답할 뿐입니다. 그 중 각 가정을 모이게 하신 그 소명은 가장 숭고한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아내가 남편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계획한 것도 아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특별하며 고귀합니다. 현시대는 가정의 해체를 부르짖으며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름을 기억한다면 나의 부모, 자녀, 친척이야 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가족 모두를 귀히 여기며 아끼는 명절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가족 기도문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나를 불러주시기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가정을 부르시어 한몸 이루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때론 허물과 실수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참음과 용납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힘써 하나되게 하신 사명을 지키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할 때,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교회의 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깨어진 이웃의 가정이 있다면 회복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셔서 모든 가정들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가정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가 559장 다같이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 ①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②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③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가족 중에서 기도자

말 씬 엡4장 1~4절 인도자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 ①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서로용납으로
 사랑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 ②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가정되게 하소서
- ③ 말씀묵상과 매일기도, 가정예배가 체질화된 가정,
 가문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